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1 사명자 대회 열린다

-10월7일(주) 부터 50일간-

우리는 10년 전 교회 설립당시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 눈물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교회를 세울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교회는 계속하여 이 때를 기억하며 창립기념 주간까지 해마다 기도와 전도 운동을 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되새기는 '사명자 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사명자 대회는 '임하소서 성령이여!'를 주제로 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 동

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와 멀어진 성도를 찾는 '잃은 양 찾기', 다락방 부흥을 위한 '배가운동', '70인전도단과 축호전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자대회의 백미인 '특별 새벽기도회'와 '기도 릴레이'가 개최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너무 버겁게 느끼는 성도나 기도의 응답이 꼭 필요한 성도는 이번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며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짐도 덜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2가지 은혜를 한꺼번에 받도록 한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개최

-요한일서 1~5장을 범위로 10월28일(주) 개최-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1달 앞으로 다가왔다.

성경암송대회는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고 갈급 하여진 영을 충만히 하여주는 단비와 같은 행사이다.

성경암송대회는 유치부 어린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부터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구수한 목소리까지 10년

동안 전 교회학교가 모두 참석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하며 성경암송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왔다. 그 동안 우리는 세상일이 바쁘다는 말로 말씀을 멀리하여 왔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성경 말씀이 꿀 보다 더 달은 실제로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지난주 우리교회는 ...



- ① 계속되어지는 치앙마이 영혼을 위한 기도
- 단기선교팀의 1차기도모임
- ② 이웃을 위한 사랑의 비자외개장예배
- 지역 사회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시발점



이웃돕기 바자 은혜 가운데 마침

교회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목표로 계획하여 준비하였던 '2001 이웃돕기 바자'가 은혜 중에 마쳤다.

우리교회가 매년 가을철에 실시하는 바자는 금년 들어 11번째로 우리교회의 중요한 정규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의 바자는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 병중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개최되어 지역사회의 섬으로 고립되어 교회가 아

니라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교회로 이웃사회와 함께 하는 본을 보이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해 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짝짝하게 하는 간이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서울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밑거름이 되어 이웃과 항상 함께 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신학 지원자 청원 요망

복사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이는 당회의 추천을 거쳐 노회 고시를 통과해야 신학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 세례를 받고 사명을 받은 자는 9월28일 까지 청원서를 제출하고 당회장과 면담을 해야 한다.

86회 총회 은혜 중에 마치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86회 총회가 목사회 원 741명, 장로회원 741명 등 총 1,482명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명성교회당에서 모였다.

최병두 목사(상신교회)를 총회장으로 선임하고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라는 주제 해설을 이종운 목사가 맡아 했다.

지난 6월 미국 장로교회(PCUSA) 총회가 동성연애자 안수 문제를 통과 시킨후 현재 노회에 수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 예수

교 장로회는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토록 전체 총대들의 동의하에 이종운 목사가 성명서를 기초하고 이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앞으로 미국 장로교회 전체 목회자에게 발송키로 했다.

이는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표한 것으로 창조섭리에서 어긋나는 생활을 하는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며 교회와 성도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을 복음으로 바로 세워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번주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개역개정판 눅 9:62)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NIV Lk 9:62)

- 미국장로교회(PCUSA) 규정집G-6.0106b 삭제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巡禮者 時論

동성애자 안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 할 것이다.



❖ ❖ ❖ ❖ ❖
이중운 목사
❖ ❖ ❖ ❖ ❖

이 글은 9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서울명성교회당에서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 제86회 총회에서 결의 된 내용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86회 총회 총대 일동은 우리의 형제 교회인 미국장로교회(PCUSA)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사명과 문화명령을 효과있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교회에 좋은 영향력 있는 교회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장로교회(PCUSA) 제 213회 총회가 소위 성실과 순결(Fidelity and Chastity) 규정이라 불리는 G-6.0106b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171개 노회에 수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은 우리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한 세기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의 모교회인 미국장로교회가 성경이 저주하고 있는 동성애자 안수제도를 인정하려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 원리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자신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표방하는 미국장로교회(PCUSA)산하 모든 노회들이 이를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국장로교(PCUSA) 총회가 어떤 계층도 복음 안에 소외될 수 없다는 포용성과 개방성의 자세로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깊은 기도와 신학적 검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미국장로교회가 선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장로교회(PCUSA) 산하 한인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충격이 아니라 신학적, 신학적 충동을 몰고올 중대 사안이므로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동요하면서도 그러나 신앙전통을 가진 미국장로교회(PCUSA)가 좋은 열매를 맺

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셋째, 불신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 옹호론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형제교회인 미국장로교회(PCUSA)가 수용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복음 증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고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미국장로교회(PCUSA)의 신앙적 결단을 바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풍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계선교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는 모든 교회와 형제 관계를 맺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장로교회(PCUSA)와 예수 안에서 한 자체임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일로 인해 우리의 형제 관계에 금이 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우리의 형제 교회를 위한 간곡한 기도요 주장이 아니며, 우리는 둘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미국장로교회(PCUSA)와 대한 예수교 장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것입니다.

2001년 9월 21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86회 총회 회원 일동

2001년 이웃돕기 사랑의 바자 현장 스케치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9.19-9.21)까지 사흘에 걸쳐 마련된 바자는 서울교회 창립이래 해마다 이어 온 행사로, 올해로 11회 짝을 맞이한다. 이번 행사는 소년소녀 가장과 병약자,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요일부 예배 직후 개막된 이번 바자는 오전부터 준비된 천막과 각종 가판대,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열심을 낸 성도들로 금세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치동 시대의 첫 바자회로, 그 첫날부터 더 넓어진 교회 앞마당과 1층 로비, 사랑부실은 성도들과 인근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준비된 각종 농수산물과 먹거리는 마치 시골장터를 연상시키고, 가전제품 및 컴퓨터, 각종 의류들과 잡화들은 백화점을 연상시키기도 남았는데, 이보다 더 부조화 같으면서도 조화로운 것은 평소 정장 차림으로만 뵈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작업복과 앞치마를 두른 채 가판대 앞에 선 모습들이다. 너나없이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1층 뿐 아니라 8층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교회 특히 육개장과 특선 비빔밥, 감동의 만

두 메뉴 등을 선보였던 스카이 라운지 식당가에는 곳곳을 도맡아 처리하는 남자 집사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바자 기간동안 8교구의 어느 권사님은 몸보다 배는 더 되는 커다란 개솔물 통에 설거지 거리를 가득 담고 1층과 8층을 오갔으며, 4교구 간사로 섬기는 어느 집사님은 개인사업도 미루고 오전부터 설치 및 바자 준비에 열중했으며, 바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쌀과 고추, 참기름, 포도 배달까지 하는 등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땀흘려 수고하는 이들로 바자 현장은 섬김의 현장이기도 했다.

7교구는 8층 식당에서 COFFEE를 판매해 특제시장을 공략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1교구의 가전제품은 아예 특관부를 신설하고 그 품목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눈

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유명 양복상품 할인권이나 유명 화장품 등 성도들이 자신의 기업제품을 아낌없이 회사해 올래 수익에 기여한 것도 따뜻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감동을 자아낸 것은 '교회학교의 판매대'와 '날라리 패션 판매대'였는데, 고등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손수 마련한 밀반찬과 학생들이 아껴 쓰던 학용품과 소장품들을 내놓아 진정한 이웃돕기 바자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다. 재미있게 이름 붙인 '날라리 패션'은 집에서 있는 중고 의류를 치장하는데 판매에 나선 제1권사회 권사님들의 안목과 열의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저녁이 되어 하루의 행사가 끝나고 행사장을 돌며 손수 비를 들고 쓸고 쓰레기를 주워담는 장로님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바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가진 적은 것들로 이웃사랑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이제 갓 10살을 맞이한 서울교회가 받은 은혜를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복음의 시간들이었다.

- 1교구 김명숙 권사

▼날라리 패션의 유래는?



옷이 여러가지가 나폴 나폴 날라리 나와서 붙었어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제일 인기있는 것 같아요. 작년

에 꽤 많은 수입을 올렸지요. 올해도 꽤 좋아요. 전 이일이 마음에 너무 들어서 좋아요. 춤추며 노래하며 즐겁게 팔수 있으니까요.

- 2교구 이자혁 집사

▼ 2교구 간사신대 대표 판매품목은?



식혜예요. 저녁에 재료 준비해서 밤새 삭혀서 준비해요. 그동안 집에 못 가고 이틀간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 특별메뉴 육개장, 비빔밥도 없어서 못 팔만큼 너무 인기 있었어요.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일이라서 기뻐요.

- 3교구 여영숙 권사

빈대떡의 원 조!!!

빈대 떡을 먹으려면 10분이상 기다려야 하는 인기품목이었답니다.



- 4교구 박미혜 집사

▼올해도 농산물을 주로 파셨는데요. 품목은?

고추1025근, 쌀200포참기름 2가마 162명, 깨소금 등 준비한 것이 거의 매진되었어요.

제가 직접 준비한 것들이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 5교구 민순구 장로

우리가 준비했던 과일류, 의류, 석정, 가방 등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식구가 적은 교구이지만 교구식구들의 협조 속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 6교구 김경옥 권사

가방을 팔았어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아 이걸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장에 가서 물건을 준비했어요. 오늘 마지막날에 다 팔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 7교구 이영숙 권사

안홍 전빵 60박스가 다 팔렸습니



다. 사람이 적어서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람으로 하고 있어요.

- 8교구 한춘홍 권사



▼뭘 열심히 부치고 계신데요?

네 수수전병이에요. 인기가 있는 비결은 교구식구들의 단결된 마음하고 솜씨-손맛이 좋아서지요.

- 9교구 서춘식 집사

우리 교구는 사과, 배, 유과 등을 팔았는데 반응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먹거리를 안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먹거리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 10교구 한명순 집사

우리는 멸치, 밀반찬, 전자제품 등을 팔았어요. 어려운 것은 없었고 반포동 보다 주택가여서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상품을 최고로 싸게 팔아 손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기뻐요. 자부심도 있구요.

- 11교구 김선미 권사

올해 처음 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 동안 새벽4시반에 일어나 준비해서 35관을 팔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 12교구 김숙자 권사

하루에 1000장정도 해물전을 부쳐요. 손님(주민)-정말 맛있어서 3일간 매일와요...



- 김태기 장로(바자 준비위원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고 이웃돕기 바자여서 인지도 인들과 이웃주민들의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새로
왔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양구 · 노임숙 집사(1교구)
등우(교2), 은경(경2), 진경(초등4)

Q:천정 부모님께서 사유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서요?

A(노집사): 저의 천정 아버님이 장손에 장남이셔서 제사가 워낙 많고 집안이 넓은 편이라 예수 믿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의 임지인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 이 서방의 믿음을 보고 믿어도 되겠다고 걱정하셨고 이로 인해 두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요.

Q: 외교통상부에 계신다면 그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셨을 텐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A(이집사): 러시아 대사관에서 3년, LA 총영사관에서 2년, 그리고 다시 모스크바에서 3년을 마치고 8년 여 만에 귀국한 지 한 달 정도 됐네요. 5월 말에 먼저 입국한 아내와

아이들이 서울교회에 등록했고 저도 지난 9월2일에 있었던 새가족부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후 뒤이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다락방장을 맡아 부부 다락방을 열심히 섬겨 목사님께 칭찬도 많이 들었고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총영사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은혜로운 사건들이 많았죠. 그 후 모스크바에 가서는 UBF에서 사역하며 감리교회 성경공부반 회장과 교육부장을 맡았고 러시아 비서들에게는 노이로 함께 성경공부도 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는 한국 UBF에서 일대일 제자 양육훈련을 받고 선교사 직임을 받았으며 외교안보 연구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제자양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Q:아이들이 완전히 서울교회 자랑꾼이 되어 벌써 많은 친구들을 인도했다면서요?

A(이집사): 목사님 말씀이 좋고 교회 시스템이 뛰어나

며 사랑이 넘쳐서 좋아요. 아이들은 외국에서 교회 다닐 때 빵 먹다가 서울교회에서 국밥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 특히 건강에도 좋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주일이면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가기 바쁘답니다. 그 친구들 부모님들께서 고맙다고 전화도 해 주십니다.

(참된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한국사회의 여성의 역할

김상철 장로 (3교구)

여성의 역할을 크게 모성의 역할, 여성으로서의 역할, 인간(인성)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의 역할 중 모성의 역할을 빼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내나 희생은 더 이상 주요한 덕목이 아니며 사랑의 의미조차도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퇴색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사회의 난맥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내와 희생과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모성의 역할은 한 가정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모성의 역할은 밝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유지케 하여주는 본질적인 여성의 역할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온유하고 감성이 발달되어 있고 나아가 靈性이 뛰어납니다. 위력의 시대, 산업의 시대, 이성의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0C와는 달리 물질의 풍요 속에 정신적 공허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21C는 靈性의 시대가 될 것이며 위와 같은 장점을 지닌 여성들의 역할은 증대할 수밖에 없고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즉 인성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Human Dignity and Values)에 대한 존중은 성경의 진리와 합치되는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질쁜 평등주의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귀하게 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논리로 가진 자를 미워하고 나보다 나은 자를 증오하는 등의 유치한 사회주의가 만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 같은 현상이 만연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인 평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회정의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베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 또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 글은 서울 주부대학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릇되고파

윤찬오 장로(10교구)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이루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어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데만 모를지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그것이 천하고 힘든 일이라도 귀한 일로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나 수신 영선이나 식당 주방 설거지 담당이나 차량 안내원이나 교사나 설교자나 그 일의 가치가 꼭 같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꼭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 가치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일을 두고서 불평할 때가 어디에 있고 또 남의 일을 부러워할 때가 어디에 있을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엡6:7)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교회의 직분이 높거나 세상을 오래 사는 데 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봉사의 태도 동기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해서 하는 동기가 첫 번째요,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동기가 둘째며,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동기가 그 셋째라면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동기는 순수한 것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순수한 동기는 바로 세 번째 경우뿐입니다. 노예는 매질이 두려워서 주인을 섬기고 값싼 품값을 받기 위해 주인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들은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섬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만이 진정한 봉사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매때로 겸손과 섬김의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내적인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과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귀한 봉사직분을 헌신적처럼 저 버리고 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오직 주의 쓰임을 받는 도구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한국 강로교 정체성 위원회를 소집하여 27일 (목) 우리교회에서 강로교회의 역사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 조경식 집사, 우상태 집사- 상조위원회 물품(조기) 기증

■ 김규배 집사(4교구) 중등부에 전기기타 기증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홍은표 집사, 진경옥 집사 가정 (자녀 결혼식을 은혜 중에 마치고)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가정 : 부명씨, 김종자 권사 가정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을 위하여
2.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I부	오전 9시
주일 예배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안남대교 영동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